

“청정대해 물고기에게 남북 있으라”

동화사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 금강산 방생대법회

남북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이 담긴 남북불교도의 통일기원문이 5월 27일 금강산 신계사에 올려 퍼졌다.

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산 동화사(주지 지성)는 광복 60주년과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5월 26~28일 민족화해와 평화통일 기원 금강산 신계사 참배 및 해금강 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발전시키고, 통일을 기원하는 불교도의 염원을 담은 7천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행사였다.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과 신도 32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27일 금강산 신계

사에서 봉행된 남북평화통일 기원 대법회는 환영사, 통일기원문 낭독, 법어,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승과 발전 세계평화를 위한 실천 사항 결의문 발표로 이어졌다.

지성 스님은 이날 행사에서 “금강산 신계사 방문을 계기로 마음속의 번뇌 망상 잡념의 찌꺼기를 모두 버리고 세계 인류가 하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남북평화통일 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통일도 다 이뤄질 것”이라고 법문했다.

이에 앞서 금강산 신계사 도감 제정 스님도 “신계사 복원 사업은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불교계가 조성하는 일이며, 이 곳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신계

사 복원사업에 동참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배단을 환영했다.

남북 불교도 320여명은 이날 법회에서 △광복 60주년을 맞아 일본의 망언을 규탄하며, 불교인들이 독도를 수호할 것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켜 발전과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실천행을 발원할 것 △7천만 겨레와 함께 힘을 모아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실천할 것 등을 결의하고, 신계사 복원사업에도 동참했다.

28일에는 해금강일원에서 민족공동번영 기원 남북불교도 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남북분단이후 북에서 처음으로 갖는 방생법회로



동화사는 5월28일 해금강 일원에서 '민족공동번영기원 남북불교도 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지역교구차원 최초로 남북교류의 물교를 든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일 떡 향토 등 물품을 남측에서 준비하고, 방생을 위한 어류 6마리를 북측에서 구해 어렵게 봉행했다.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청정대해의 물고기는 남북이 없으며,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며, “어류방생을 통해 통일염원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먹을 것이 귀한 북한 사정 탓인지 물고기 방생의 의미를 몰라 의

아해하던 10여명의 북측안내원들도 이날 법회 후 “왜 방생법회를 봉행하는지 알겠다”는 반응을 보여 불교의 전통인 생명존중사상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

글·사진/금강산=배지선 기자

상월 대조사 열반대제 천태종, 3일 구인사서

천태종을 중창하고 초대 종정을 역임한 상월원각대조사 31주기 열반대제가 6월 3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2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추모사에서 “대조사님은 평소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강조하셨다”며 “천태종도들은 금강대 인재불사, 평화통일 불사 등을 통해 대조사님이 가르치신 3대지표를 실천하는데 더욱 정진하자”고 말했다.

이날 열반대제는 문화관광부 정동태 장관, 충북도청 이원종 도지사, 열린우리당 서재관의원,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 등의 추모사에 이어 추모가 합창, 관음정진, 사홍서원 등의 순으로 회향했다. 김현우 기자

국공립校 종파교육 불허

국공립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종교교육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이하 교육부)는 5월 24일 참여불교계 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회(준비위원장 박광서, 이하 종자연)에 보낸 공문을 통해 “국공립학교 특별활동에 종교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교육기본법에 위배됨이 없도록 운영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특정 종파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종교 관련 프로그램에 학생을 강제로 참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종자연은 6월 2일 교육부에 다시 공문을 보내 “종교교육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해 위법사례에 대한 표본을 만들 수 있도록 공동으로 교육실태를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유철주 기자

조승수 의원 살리기 나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 불교계 8개 단체가 모여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불자자킴이 모임(상임대표 진관)’을 결성하고 조승수 의원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단체는 5월 30일 조계사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조승수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지역의 오랜 현안인 음식물자원화 시설 설치와 관련 서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며 대법원에 무죄판결을 호소했다. 김지연 기자

조승수 의원 살리기 나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 불교계 8개 단체가 모여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불자자킴이 모임(상임대표 진관)’을 결성하고 조승수 의원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단체는 5월 30일 조계사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조승수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지역의 오랜 현안인 음식물자원화 시설 설치와 관련 서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며 대법원에 무죄판결을 호소했다. 김지연 기자

“통영 케이블카 건설 반대 변함없다”

조계종, 입장 재확인

조계종이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건설 반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총무원 사회부장 정남 스님은 6월 1일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방문한 자리에서 “케이블카 건설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

정남 스님은 또 “조만간 통영을 방문해 지역 사찰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장 분위기를 살펴보고자”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은 “케이블카 건설부지가 조계종 소유임에도 사용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통영시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조계종이 공사중지와 케이블카 건설 불허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윤준하 대표는 “이미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된 상황이기에 때문에 조계종이 하루 빨리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대불청 전국불교청년대회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익석)가 창립 85주년을 맞아 제24차 전국불교청년대회(이하 불청대회)를 6월 11~12일 전남 순천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했다.

“청년불자여!!! 미래의 등불을 밝히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불청대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통일과 민족화합의 장을 만든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 한마당 및 미래의 서원을 비는 탑돌이 ‘불청 범종을 울려라’ 퀴즈 프로그램을 비롯, 2005년 청년불교도 서원 및 시상식이 열린다.

김지연 기자

동국·위덕대 수시 모집

각각 287·140명 선발

2006학년도 종립대학 대입 수시 1학기 모집의 원서접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동국대=서울캠퍼스는 일반우수자 전형 254명, LST(Leadership, Special Talent) 전형 30명, 연기재능 우수자 전형 3명 등 총 287명을 선발한다. 불교대학의 경우 일반우수자 전형으로 5명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7월 13일~18일(동국대 홈페이지 www.dongduk.ac.kr)

한편, 경주캠퍼스는 불교문화대학에서 일반우수자 전형 3명, 만학도 전형 일반인 3명, 선학과 스님 10명을 선발한다. 불교이동학과, 유아교육과도 일반우수자 전형으로 각각 3명씩 선발한다.

△위덕대=일반학생 전형 89명, 실업계고교졸업자 전형 25명, 농어촌학생전형 26명 등 3개 전형에 총 140명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7월 18일~22일 5일간이며, 위덕대 원서접수처 또는 홈페이지(www.uu.ac.kr)

한편, 중앙승가대(조계종 종립)와 금강대(천태종 종립)는 오는 10월 수시 2학기만 모집.

조승수 기자

SGI 경계 여론 속 불교계 자성 목소리

■본지 한국SGI 보도 그후

본지의 한국SGI 관련 기사가 보도(527호 1면, 528호 8면)된 이후 한국SGI의 실체를 알게됐다는 의견들과 함께 한국불교가 구태를 벗고 보다 적극적으로 포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구미 도현사 주지 지선 스님은 “SGI가 평화봉사 활동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단체와 다르지 않다”고 규정하고 “자신의 종교이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등을 보다 명확하게 파헤쳐 신도들에게 실상을 알려야 한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부산 지역의 불자라고 밝힌 손모(39)씨 역시 “한국SGI가 이렇게까지 성장하지 못했다”며 “불교계 차원에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부다뉴스 ID ‘이것참’은 “한국 불교 위기의 본질은 현대인이 아들이 쉬운 말로 불법을 전파하는데 실패한 것에 있다”며 기존

불교계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적지 않은 네티즌들은 포교 방법을 혁신하는 것과 함께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교단자정 문제를 여법하게 해결하는 모습으로 기존 불교계의 악습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와 다른 의견들도 있었다. ID ‘합박소리’는 “가난하고 힘없는 불자들이 그나마 SGI가 이끌어 주었다. 반일감정을 이용해 일본 불교라 매도하지 말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 ID ‘참회하라’는 “기성불교는 빠져진 반성이 있어야 한다. 늘 문제는 스스로에게 있는 법이다. (한국 SGI를) 새로워지려는 불법의 자연스런 몸짓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SGI 홍보국의 한 관계자는 “기사가 지나치게 SGI를 부정적으로 왜곡한 것 같다”며 “SGI의 다양한 활동과 새로운 포교방식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고 서운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유철주 기자

파라미타 청소년 문화존 첫선

800여명 참가 천연염색체험 인기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원택)의 청소년 문화존이 5월 28일 첫 선을 보였다. 오후 2시 서울 종로 우정공원 앞에서 중·고등학생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작됐으며, 풍물패의 길놀이로 북촌 인사동 청소년 문화존의 개막을 알렸다.

이날 축하공연에는 목동청소년

회관의 보컬그룹 ‘모티브’, 파라미타 문화 지도위원 범성 스님, 동대부 속여중 댄스팀 ‘크라티아’ 등이 출연했다.

첫 날 문화존 체험은 △역사문화 기행 △북촌 한옥길 탐방 △경복궁 탐방 △창덕궁 탐방 △운현궁 탐방 △불교문화 체험(사물시연) △인사

동 갤러리모니터링 △전통공예 체험-매듭공예 천연염색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전통공예 체험의 천연염색 코너는 학생들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염색전이 모자랄 정도의 인기를 얻었다.

조한근 과장은 “청소년 문화존은 불교를 알리지 않고 지역을 배경으로 한 불교와 전통문화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며 “학교 C.A활동, 사찰학살회 등과 연계해 주말 뿐 아니라 평일 참여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지연 기자

일불 대중사 원적 9주기 추모 남북통일 세계평화 기원대법회 봉행위원회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통해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이루고자 한 일불 대중사님의 생전 원력을 계승하고자 일불 대중사원 원적 9주기를 맞이하는 오는 6월 15일 서울 일불선원에서 미국 선종대학(일부삼장대학원 본교) 총장이신 고성 대선사를 모시고 “남북통일 세계평화 기원대법회”와 아울러 만등불사를 봉행코자 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 증 명 : 고 성
- 고 문 : 정 각 동 명 청 곡 원 정 이법산 김광태 한정섭 이배영 오형근 최종천 최승식
- 대법주 : 봉 암
- 법 주 : 법 우
- <지도위원>
도배 도만 도항 도진 도찬 법만 설우 효담 정봉 도응 법용 법진 월담 월인 석담 도원 대성 법광 지원 혜문 태허 무용 경호 혜진 법천 완호 진성 혜성 동성 대덕 상호 상열 진우 대산 규암 무위 해명 탄형 영광 혜광 혜국 혜진 혜오 혜도 혜관 운광 혜광 (일부문도회)
- 봉행위원장 : 법 철
- 부 위원장 : 상 근 혜 관

<집행위원>
경담 고광 공덕 관무 금오 기봉 기원 남당 대공 대국 대경 덕명 덕담 덕우 도광 도권 도운 도원 도일 도화 동월 두암 무용 범용 법근 법도 법민 법산 법상 법인 법영 법운 법조 법화 법회 벽각 보광 보덕 보선 보천 삼주 상목 상열 상호 석봉 선철 선현 선화 성덕 성암 송광 송천 수암 수현 영수 영월 와룡 용주 운암 원광 원천 원통 원산 원연 월오 월해 월현 인선 인오 일선

- 집행위원장 : 현 각
- 부 위원장 : 법 성 무 원
- <집행위원>
서병렬 이춘하 김대비심 강정희 고금순 고오연 고인덕 김연화행 김금옥 김대자 김면암 김범수 김병락 김자비행 김양순 김완식 김천용 김현수 김고경 박대복심 김희진 노연식 노효순 마향숙 민영옥 박진공심 박창경 박태임 변경자 서두수 선양희 송대련화 신범은 안용희 양순자 오금주 이강옥 신법화심 이명재 이법화 이성위 이순희 이지혜 양대법화 이태숙 임부희 임순덕 임정신 장순옥 옥자비행 조방선 주원각 최병자 최인선 최창람 윤불심행 허순애 황현숙 권기주 박순남 이만수행 조민숙 강정희 고금순 권기주 김면암 김자비행 김여오 김연순 권기주 민병택 배순금 정대륜심 서진남 안용희 양순자 양해옥 이효주 정수월심 임순덕 장순옥 조방선 한상오
- <지역동원본부장>
서울 보덕(보타사 주지) 부산 대성(자비원 주지) 대구 원통(정토사 주지) 인천 정법(대덕사 주지) 울산 혜산(도솔암 주지) 경기 월오(도림사 주지)

- 강원 법성(대원암 주지) 대전 현광(보문사 주지) 충남 명달(백학사 주지) 충북 법화(연화사 주지) 경북 혜송(석불사 주지) 전남 해심(호국사 주지) 전북 종산(신성암 주지) 제주 관일(영조사 주지) 경남 일선(천비룡사 주지)
- <화 주>
맹대덕화 김홍연심 김군자 이용숙 이옥매 이옥희 김오목 박영희 김해식 한순남 한동해 김수열 김정수 오준원 신인찬 장형진 전성자
- <사무처>
김병락 윤봉안 신동태 최명희 이상민
- ◆ 정동행사 일시 장소 : 2549(2005)년 6월 14일 (음력 5월 8일) 오후 6시 일불선원 일원
- ◆ 추모법회 일시 장소 : 2549(2005)년 6월 15일 (음력 5월 9일) 오전 10시 일불선원 법당
- ◆ 기원법회 일시 장소 : 2549(2005)년 6월 15일 (음력 5월 9일) 오전 11시 일불선원 법당
- ◆ 문의 및 접수처 : 일불대중사 원적 9주기 추모법회 및 남북통일 세계평화 기원대법회 봉행위원회
● 서울 종로구 신영동 93번지 일불선원 02)379-2635, 379-7537
● 대한불교 일불선교총무원 및 각 지역본부 02)394-9468~9

불기 2549(2005)년 5월